

정 준 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 IAEA 핵의학 지역교육과정

1999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당뇨병 진료의 핵의학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지역교육과정이 열렸다. IAEA 지역교육과정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역협력기구(RCA)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 내 원자력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는 교육·훈련과정이다. 여러 분야의 RCA 협력과정 중 특히 보건의학 분야의 협력사업이 활발하여 이 분야 사업을 방사선진단 QC, 핵의학, 핵의학기술훈련, 조직중합방사선멸균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 이번 훈련과정(Regional Training Course: RTC)은 핵의학 분야의 훈련과정이었다. IAEA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중 다양한 RTC를 개최하여 방사성핵종의 의학적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아시아인의 보건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필자가 책임자로 일하였고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22명의 핵의학 의사가 참석하였다. 강사로 영국의 Dr. Britton(St. Bartholomew 병원), Dr. Buscombe(Royal Free 대학)와 인도의 Dr. Sharma(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가 내한하였고, 국제원자력위원회의 Dr. Padhy가 참석하였다. Dr. Britton은 유럽핵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핵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고, Dr. Buscombe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학자이다. 인도의 Dr. Sharma 소화기내과의 전문가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소화기관 기능 평가의 전문가이다.

이번 RTC는 당뇨병환자의 진료에서 핵의학의 이용을 주제로 시행되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아시아국가에서 최근에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러 합병증이 잘 생기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훈련과정에서는 당뇨병 합병증인 심장, 신장, 뇌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의 기능평가와 치료효과 판정에 핵의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시켰다. 예를 들면, 심근혈류단층촬영



영(SPECT)과 양전자단층촬영(PET)으로 심장 합병증을, 신장스캔과 요단백질 방사면역측정법으로 신장합병증을, 뼈스캔으로 골형성이상증을, 뇌관류SPECT와 PET로 뇌혈관 질환을 간담도스캔과 위통과시간 측정으로 소화기 합병증의 진단 평가 방법을 공부하고 실습하였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학자들이 다수 강의를 맡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장기현 교수(진단방사선과)가 “뇌혈관 질환의 진단법”, 안규리 교수(신장내과)가 “당뇨병성 신장 질환에서 핵의학 이용”, 박경수 교수(내분비내과)가 “당뇨병 개론”, 정재민 교수(핵의학과)가 “동위원소를 이용한 GFR 측정법”, 이용석 교수(신경과)가 “당뇨병에서 뇌혈관 질환”을 강의하였다. 이외에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정의 교수(순환기내과)가 “당뇨병과 심장 질환”, 김상은 교수(핵의학과)가 “당뇨병성 뇌혈관 질환에서 PET의 역할”, 이경한 교수(핵의학과)가 “당뇨병의 심근 합병증에서 PET를 이용한 고감신경 평가”와 “하지 혈관 폐색증에서 핵의학 진단법”, 부산대학의 김인주 교수(핵의학과)가 “핵의학을 이용한 당뇨병 미세혈관 질환, 신경성 합병증 진단”을 강의하였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GFR 측정”, “Captopril 신장스캔을 이용한 신혈관 고혈압 진단”, “당뇨병에서 위배출시간 측정”, “Diamox를 이용한 뇌혈류 SPECT”에 대한 실습이 있었다. 실습은 정준기, 정재민 교수가 지도하였다. IAEA의 핵의학 분야 책임자인 Dr. Padhy는 폐회식에서 지금까지 2년간의 지역교육과정중 준비와 진행이 가장 완벽하였다고 극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강사들의 높은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동안 핵의학 분야에서 RTC를 고창순 교수, 박용휘 교수, 이명철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핵의학 및 원자력 분야의 위상을 높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7월 19일 거행된 개회식에 고창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 이현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이정상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박용현 서울대학교병원장, 이명철 서울의대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고창순 한국방사성동위원소 협회장은 7월 21일 외국 참가자들을 “한국의 집”으로 초대,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KRIA**